

## 박용길의 편지 ‘당신께’ 컬렉션의 특성과 과제

The Characteristics and Tasks of Park Yong-gil's Letter 'To You' Collection

오명진(Oh, Myung Jin)\*

1. 머리말
2. ‘당신께’ 컬렉션의 생산 배경
  - 1) 개인의 삶과 편지
  - 2) 옥바라지와 편지, 여성의 역할
3. ‘당신께’ 컬렉션의 특징
  - 1) 관리 맥락
  - 2) 작성 목적과 수신자
  - 3) 공동 발신자
  - 4) 세부 시리즈 구성 체계
  - 5) 작성 방식과 매체
4. ‘당신께’ 컬렉션의 가치와 과제
  - 1) 소장자료로서의 가치
  - 2) 향후 과제
5. 맺음말

\* 사단법인 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 자문위원, 한국외대 정보·기록학과 강사  
(doyekinme@gmail.com).

■ 투고일: 2022년 03월 31일 ■ 최초심사일: 2022년 04월 05일 ■ 최종확정일: 2022년 04월 16일.

■ 기록학연구 72, 205-239, 2022, <https://doi.org/10.20923/kjas.2022.72.205>

## 〈초록〉

박용길의 개인 편지 ‘당신께’ 컬렉션은 사단법인 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가 관리하는 근현대 한국의 단면을 품고 있는 귀중한 사료이다. 이 편지들은 약 10년 3개월 동안 작성된 것으로 현재 약 2,304통이 남겨져 있으며 사료를 장기 보존하기 위한 사회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기록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 글은 그간 본격적으로 소개되지 못했던 박용길 편지를 기록학계에 소개하고 그 전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과제를 살펴보려는 목적을 갖는다. 이를 위해 박용길 개인의 삶 속에서 편지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특히 옥바라지의 일환으로 쓴 편지라는 측면에서 이 편지의 가치를 조명하였다. 그리고 아카이브 소장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편지가 갖는 내, 외적 특징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로서 파악된 박용길 편지의 특징은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로 상당한 분량과 집합성을 갖고 축적된 것으로 공동 발신자, 독특한 작성 형태, 다양한 작성 매체를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편지라는 친숙한 소재를 갖고 동시대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 공감하기 쉬우며 동시대 사건, 인물에 관한 풍부한 정보적 가치를 품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이용자층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신께’ 편지는 이러한 역사, 문화적 가치와 다양한 활용 가치를 토대로 향후 다양한 연구와 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개인기록, 개인 편지, 감옥 편지, 박용길, 문익환, 매뉴스크립트**

## 〈Abstract〉

Park Yong-gil's personal letter 'To You' collection is a valuable historical document that contains aspects of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 managed by the Late Spring Moon Ik-Hwan Memorial Foundation. These letters were written for about 10 years and 3 months, and there are currently about 2,304 letters left, and support is needed to secure social feasibility for long-term preservation of historical materials and to establish a stable record management system.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troduce Park Yong-gil's letter, which has not been introduced in earnest, to the archival community, and to comprehensively review the whole story and examine the tasks. To this end, the meaning of the letter in Park Yong-gil's personal life was examined, and the value of this letter was particularly highlighted in terms of being a letter written as a part of Okbaraji. And b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the status of the archives, the internal and external characteristics of the letter were comprehensivel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Park Yong-gil's letter identified as a result of the study are that it is a letter sent to one person, and it is accumulated with a considerable amount and aggregation. In particular, it is expected to have a diverse user base in that it is easy to empathize with because it contains the familiar subject matter of letters and the stories of contemporaries, and contains a variety of informational values about contemporary events and people. Based on these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s and various useful values of the letter 'To you', various research and development of services should be made in the future.

**Keywords** : Personal records, Personal letter, characteristics of prison letters, Park Yong-gil, Moon Ik-hwan

## 1. 머리말

편지란 주로 하루 하루의 일상을 다룬다. 이런 편지의 성격은 ‘혼자 지내면서도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마이클버스, 올랜드 버드, 2021, 6)’이 되게 하였다. 편지의 역사는 문학의 역사였으며 편지는 누구나 자신의 방식대로 말할 수 있는 플랫폼(마이클 버스, 2021, 11)이 되어 주기도 했다. 지금도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숨은 이야기를 원하는 독자들에게 편지는 무궁한 스토리의 원천이 되어주고 있다. “삶

의 중요한 순간들 대부분이 편지에 담겨있다”라는 말은 편지의 보편성과 더불어 모두에게 깃들 수 있는 무한한 파급력을 떠올리게 한다.

박용길의 개인 편지 컬렉션 ‘당신께’(이하, ‘당신께’)<sup>1)</sup>도 그런 편지 중의 하나이다. 이 편지는 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가 소장하고 있는데 민주화운동 주요 인사이자 통일운동가였던 박용길(1919-2011)이 쓴 것이다<sup>2)</sup>. 이 편지들은 2009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지원을 받아 정리 작업과 디지털화가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실물에 대한 체계적인 통제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활용되다가 지난 2021년도 하반기에 편지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작업이 진행되면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민간 인물 아카이브의 관할 아래 있는 이 사료의 앞날은 녹록지 않다. 당장 정리작업 성과가 유지되고 장기적 보존을 위한 체계로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기록관리가 유지되어야 한다. 기반이 열악한 민간기관에서 기록관리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어 보존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회적 타당성과 인식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공감대 형성과 지원체계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는 ‘당신께’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아카이브의 과제를 전망해 보려는 목적을 갖는다. 이 편지는 박용길이 남편 문익환(1918-1994)의 옥바라지 과정에서 쓴 것으로<sup>3)</sup> 늦봄의 옥중편지가 일찍이 여러 차례 책과 논문으로 대중을 접했던 것과 달리 본격적으로 소개

- 
- 1) 박용길이 감옥으로 보냈던 편지들은 유독 ‘당신께’로 시작되는 것들이 많아 “당신께 컬렉션”으로 명명하였다.
  - 2) 2016년 우리의 문화유산인 민주화운동자료를 보존하며 시민들과 공유하고 문익환과 박용길의 정신을 기리는 박물관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단법인 통일의 집이 발족했고 2021년 사단법인 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로 재발족하였다.
  - 3) 문익환의 옥살이는 1976년 3.1민주구국선언 성명으로 구속되면서다. 이후 유신헌법 비민주성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두 번째 구속됐고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80-82년), 집시법 위반(86-87년), 방북(89-90년), 분신 정국 정치활동(91-93년) 등으로 모두 10년 3개월 동안 옥고를 겪었다.

되지 못했고 소개되더라도 옥중편지에 부수되는 존재로 다루어졌다.<sup>4)</sup> 하지만 민주화 활동으로 옥고를 치렀던 남편에게 123개월 동안 쓴 아내의 편지는 남편만을 위한 것이라거나 남편의 편지에 딸린 존재로만 볼 수 없다. 특히, 박용길의 편지 ‘당신께’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옥바라지를 넘어 주체적인 여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특색있는 사료이다. 이 연구를 통해 이 편지 컬렉션의 성격과 가치, 기록관리 대상으로서의 특성을 확인하며 장기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편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문헌 연구, 관련된 업무기록 및 편지 분석, 면담 및 조사 등 다원적인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특성을 규명해보고자 했다. 먼저 박용길 개인의 삶 속에서 편지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특히 옥바라지의 일환으로 쓴 편지라는 측면에서 이 편지의 가치를 조명하였다. 이어서 아카이브가 소장하고 있는 편지의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편지의 내·외적 특징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아카이브 소장 자료로서 편지의 가치를 확인하고 향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 2. ‘당신께’ 컬렉션의 생산 배경

### 1) 개인의 삶과 편지

박용길은 3.1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 황해도 수안면에서 박두환과 현문경의 셋째딸로 태어났다. 평안북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경성

---

4)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문익환의 사회적 존재감이 큰 탓도 있겠지만 남성 위주의 사회 속에서 아내나 여성의 역할은 보조 역할자로서 다루어졌다. 이러한 경향은 독립운동 시기 집안 전체가 독립운동을 했더라도 남성 위주의 독립운동 연구로 집중되어 여성의 활동은 부각되지 못하는(심옥주, 2021, 392) 상황과도 일맥상통한다.

에 있었던 경기여고에 다녔다. 그녀가 문익환을 알게 된 것은 요코하마 신학교에 유학하던 때인데 도쿄 근교에 있는 한국 신학생들의 모임인 관동신학생회 신입생 환영 모임에서 처음 만났다. 그들은 1944년 안동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문익환이 전도사로 있던 만주 길림성 만보산 교회 사택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으며 1946년 신정을 떠나 월남했다. 한국 전쟁 때는 시댁 식구들과 함께 거제도과 제주도에 피난 생활을 했으며 유엔 극동사령부에 근무했던 남편을 따라 일본에 머물다가 전쟁이 끝난 뒤 서울에 정착했다. 이후 경기여고 동창생들과 탁아원 운영, 장학사업,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했고 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에서 활동했다. 또한 요코하마 신학교 동창생들이 주축이 되어 순교한 동문들을 기리는 “여순교자 기념사업”을 하였으며 한빛교회 장로로 활동했다.

그녀의 삶은 1976년 <3.1민주구국선언사건> 이후 큰 변화를 경험했는데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던 남편의 옥바라지를 하면서 민주화운동, 통일운동, 여성활동가로서 살았다. 남편과 함께 갈릴리교회(고난받는 이들의 모임)를 운영했고 양심수가족협의회(구속자가족협의회), 민주화 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통일맞이칠천만겨레모임,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회의에서 활동했다. 남편이 작고한 후 남편 조문에 대한 답방의 차원에서 김일성 1주기 조문(1995년), 조선 노동당 창건 55돌 초청 인사(2000년)로 두 차례 평양을 방문하고 판문점으로 귀환하여 옥고를 치른 바 있다.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명예대표로 활동했으며(2005년)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2180호)했다. 2011년 9월 25일 별세했다.<sup>5)</sup>

특히 박용길은 기록을 생산하고 소중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남달라서 그녀의 인생 반경에 속한 많은 부분을 기록으로 남겼다.<sup>6)</sup>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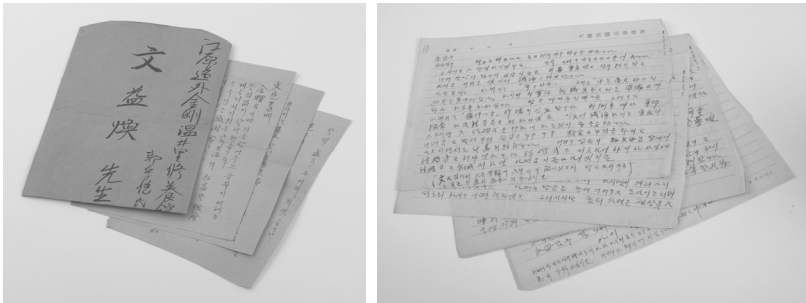
5) 이 내용은 문익환 평전(김형수, 2018)과 박용길 평전(정경아, 2020)을 참고하였다.

6) 박용길과 관련된 기록들은 개인사, 기독교 여성 활동, 옥바라지와 민주화 활동, 여성 통일 운동의 범주에서 생산되었으며 직접 쓰고 만든 각종 원고와 노트, 스크랩북, 주제 사진 앨범, 글씨와 수예 작품 등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고 있다(늦봄문학관 기념사업회 분류기준표, 2022).

러한 기록가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 중 하나로 남편과 떨어져 있었던 시간마다 주고받은 편지가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 그들이 서로 주고받은 편지의 역사는 연애 시절부터 시작되어 남편의 유학 시절, 한국 전쟁 시절, 감옥 시절로 이어지고 있는데 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 근현대사를 살았던 개인의 삶 전반에 관한 맥락을 살펴야 한다.

가장 먼저, 1940년대에 쓰여진 연애시절 편지는 일본에서 연애 중이었던 용길과 익환이 서울과 만주 용정으로 돌아가면서 시작되었다(문영금, 2019, 10). 편지에는 그들의 연애사와 주변에 일어난 일들이 담겨 있고 문익환이 크리스마스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직접 만들어 연습시킨 음악극 극본, 아버지 문재린 목사 근속 10주년 기념예배 초청장, 순서지, 악보, 자작시 등 다양한 자료들이 첨부되어 있다. 흥미로운 것은 박용길이 편지봉투에 번호와 받은 날짜를 적고 중요내용을 적어놓았다는 점이다. 이 편지들을 통해 그들이 언제부터 둥근달님(문익환)과 코스모스(박용길)라는 애칭을 썼는지, 그들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어려움과 갈등을 겪으며 결혼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알 수 있다(문영금, 2019, 12). 멀리 떨어진 연인들에게 사랑의 매개는 바로 “편지”였기에 그들의 사랑은 편지로 이루어진 셈이다.

〈그림 1〉 박용길과 문익환이 1940년부터 1944년까지 서로 주고받았던 연애편지



출처: 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

결혼 후에도 문익환의 유학과 한국 전쟁으로 떨어져 지낸 시간은 이어졌다. 문익환은 1949년 초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로 유학을 떠났다가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유엔군 소속 통역장교로 일했으며 전쟁 후 다시 프린스턴에 돌아가 학위를 마쳤다. 그 후 한신대 교수로 활동했고 1965년에는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대학에 1년간 연수를 떠나기도 했다. 유학의 길과 또 전쟁으로 헤어져 지냈던 문익환과 가족들은 서로 편지를 보내 안부를 묻고 가족의 중요한 일들을 의논하고 궁금한 소식을 나누었다. 이 당시 주고받은 편지에는 학업에 열중하면서도 가족을 그리워했던 문익환과 세 아이를 낳아 시부모와 함께 키우고 있었던 박용길의 모습이 담겨 있다.

편지를 쓸 때는 내 편지를 다시 읽어 보고 내가 물은 것을 하나 남김없이 알려 주시오. 겨울 coat 좋은 것 하나 얻었으니, 겨울 나는 것은 걱정없이 되었군요(문익환, 1965. 10. 13).

가족사진을 액자에 넣어 놓은 것을 늘 볼에다 비비지만, 어디 그것으로 허전한 마음이 잘 까닭이 없지요. 그래도 몸과 마음으로 가족과 떠나지 않고 가까이 있다는 느낌만은 어느 정도 느껴보는 거죠(문익환, 1965. 11. 8).

1940-60년대에 작성된 연애 시절과 유학과 전쟁 시기 편지 중 남겨진 것들의 전모에 관한 파악은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일제 시기부터 오랜 시기에 걸쳐 있고 한글과 한문, 영어 필기체 등이 섞여 있으며 손으로 흘려 쓴 것이라 내용의 판독이 쉽지 않다. 또한 내용 자체를 읽어낸다고 하여도 편지에 담긴 행간의 맥락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현재 전시 등에 사용되었던 일부의 편지에 관한 내용과 개요 수준의 맥락 일부가 확인되어 있다.<sup>7)</sup>

이 편지들은 편이상 1940년대 초반 결혼 설득 편지, 1949-52년 사이 프린스턴 시절과 전쟁기의 편지, 1965-66년 국제우편, 오염된 편지 등으로 구분해 둔 상태였다. 대부분 오래되어 곰팡이로 오염되거나 찢김 등의 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이 편지들은 최근에야 가등록 후 최소한의 보존 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이다. 정리과정에서 파악된 바에 따르면 이 편지들 속에는 문익환, 박용길 두 사람이 주고받은 편지 외에도 두 사람이 지인들로부터 받은 편지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 기간 편지들의 전체규모는 약 200여통 정도로 파악되며 향후 제작해 놓은 디지털 사본을 활용해 내용과 맥락을 충실히 확인하고 본격적인 정리와 활용 체계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박용길의 삶 속에서 쓰여졌던 중요한 편지가 바로 감옥으로 보낸 편지 '당신께'이다. 이 편지는 그녀가 민주화와 통일운동의 과정에서 감옥에 수감된 남편 문익환에게 1976년부터 1993년까지 보냈던 편지이다. 문익환의 수감으로 박용길의 편지쓰기는 이전 시기와는 차원이 다르게 행형법의 규율에 따른 옥바라지라는 새로운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이 편지는 옥바라지라는 측면에서 그 역할과 의미를 조명해볼 수 있고 나아가 주체적인 한 여성의 활동 기록으로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

7) 예를 들어 초기 연애편지는 문익환의 편지만 남아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박용길의 집안에서 문익환이 폐병으로 금강산에 요양갔다는 것을 알고 결혼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문익환에게서 온 편지를 감추고 전달해주지 않아 소식이 끊어졌었고 이후 전보로 연락이 닿았으나 헤어지자는 오해를 하게 되어 문익환이 받은 선물을 돌려보내고 편지를 불태웠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 연애 시절 남아있는 편지들은 거의 문익환 편지이고 박용길의 편지는 한 통만 남아 있다(문영금 2019, 12).

〈그림 2〉 박용길이 문익환에게 매일 보낸 편지를 낱싸순으로 정리해 만든 스크랩북



출처: 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

## 2) 옥바라지와 편지, 여성의 역할

근대적 감옥은 수감자들의 시간과 공간을 통제함으로써 그들을 다른 인간이 되도록 ‘지속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새로운 통치기술로 등장했다(이종민, 1998, 38). 엄격한 규율에 따라 수감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감옥 행정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세세한 규정들을 추가해갔고 수인에게 감옥은 “인간에게서 태양의 권리를 박탈하고 정서의 썸을 고갈시키는 결과 메마른 인간을 만드는 기계의 작용하는 법으로써 행하는 곳”이었다(김광섭, 1976).<sup>8)</sup> 이는 수감자로 하여금 통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행위를 이끌었고<sup>9)</sup> 감옥 밖으로부터

8) 김광섭, 「思想犯」, 『나의 獄中記』, 창작과비평사, 1976, 205쪽. 재인용: 전영옥, 2016, 112.

터의 옥바라지를 필요로 하게 했다. 하지만 옥바라지는 수감자가 감옥 밖에서 영위한 일상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감옥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수감자의 행위와는 특별한 차이가 있다(전영옥, 2016).

바라지는 음식이나 옷을 대어 주거나 온갖 일을 돌보아 주는 일을 말한다. 이것이 “옥”이라는 명사와 함께 쓰인 것이 옥바라지이다. 옥바라지는 감옥에 갇힌 죄수에게 옷과 음식 따위를 대어주면서 뒷바라지를 하는 일을 말한다. 일제 시기 감옥을 경험한 이봉수란 인물은 “서신의 왕복과 면회와 사식 의복 기타 제품의 차입과 꿈과 운동과 서책 등은 나의 생명수(이봉수, 1925. 7. 25)”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렇게 옥바라지는 수용자를 세상과 이어주면서 옥살이를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일로 수감자의 사소한 일상을 지속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옥중투쟁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감옥 기능의 핵심이 수감자를 고립시키는데 있다면 옥바라지는 감옥에 대한 근본적인 저항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후지이 다케시, 2016).

민주화운동 시기 많은 양심수들이 생겨났고 그들을 통제하기 위한 규율로서 적용되었던 행형법을 살펴보면 이러한 옥바라지의 개념범주에 해당하는 행위들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살필 수 있다.<sup>10)</sup> 우선 이 법은 그 목적에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을 전제로 함을 밝히고 있으며(법 1조) 하지만 이들에게 보내진 물품을 교부하고(법 42조 금품교부) 의류, 침구 식량 등 자변을 허가하거나(법 22조) 접견과 서신 수발(법 18조)을 규정하여 외부와의 제한된 관계 맺기를 허용하고 있다. 즉, 수인의 일상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으로서 옥

---

9) 이종민의 정리에 따르면 감옥의 통제에 대응하는 수감자의 행동 양식에는 은밀한 대화, 통방, 손짓이나 쪽지, 단식투쟁, 파업, 개선요구 등이 있었다(이종민, 1994).  
10) 우리나라에서 수용자에 관한 형 집행과 처우에 관한 법률은 1950년에 『행형법』(법제 105호)으로 제정되어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이 있다. 여기서는 늦봄 문익환이 수감됐던 시기 행형법(법률 제 3289호)과 시행령(대통령령 제 10313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바라지의 개념에는 금품교부와 자변, 면회와 서신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편지는 직접 방문을 해야 하는 면회보다는 손쉽게 수감자의 일상에 다가갈 수 있는 방편이었다. 편지가 주로 하루하루의 일상을 다룬다는 점도 수감자에겐 “비타민보다 더 영양제”가 되었다.<sup>11)</sup>

수신의 위안. 만일 수인의 고통이 사회와 격리한데서 나왔다고 하면 잠시간이라도 그 고통을 망각케하는 방법은 편지가 있을 뿐이 아닙니까……

어떤 편지는 스무 번 설흔 번도 읽고 아무리 간단한 엽서라도 사 오 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내용은 말할 것도 없이 모두 위로하는 것인데 제일 위로되는 것은 내가 항상 접하든 주위의 사정을 새새하게 적어보낸 편지이더이다(이봉수, 1925. 7. 25).

민주화 운동시기 감옥에 있었던 많은 양심수들에게도 편지는 바깥세상의 소식을 알고 자신의 뜻을 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다.<sup>12)</sup> 박용길이 감옥으로 보낸 편지 ‘당신께’는 이러한 옥바라지로서 편지의 역할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선 이 편지는 제한된 상황이었지만 문익환의 일상을 지켜주려는 목적이 있었다. 문익환은 감옥에서 편지를 통해 가족의 일에 관여할 수 있었는데 그가 박용길 앞으로 보냈던 옥중편지에는 가족에 관한 관심이 가득하다. 부모님의 생신과 70주년이 되는 결혼 기념일을 챙기고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생즙을 마실 것을 당부하거나 기생충 약을 복용하라는 권유를 하기도 하며 막 탄생한 조카 손주의 이름을 지어주기도 한다(문익환, 1981. 3. 6, 4. 6). 편지를 받고 박용길은 남편이 보낸 요청에 대한 상세한 응답뿐 아니라 가족과 이웃에서 일어

11) H. C. S 生, 「女監獄生活」, 『혜성』 창간호, 1931년 3월, 90쪽. 재인용: 전영옥, 2016, 120.

12) 김대중 대통령은 감옥보다도 못한 서울대 병원에서의 감금 생활을 두고 “병원에 누워 있는 것은 산 채로 관에 들어간 듯했다”고 표현했으며 이 병원 감옥에서 이루어진 아내의 병수발, 옥바라지가 눈물겨웠다고 회고하고 있다(김대중, 2010, 363-367).

난 시시콜콜하고 중요한 일들을 소상히 담아 편지를 보냈다.<sup>13)</sup> 특히면 정전이 되는 일, 씩크대 타일이 깨지고 떨어져 새로 간 일, 보이라가 망가져 고친 일, 겨울을 맞아 김장을 하고 김치독을 네 개 묻은 일과 같은 집안의 대소사는 물론 마당에 목련이 활짝 핀 정원 풍경도 담아 보냈다(박용길 1979, 10. 9, 1981. 4. 10). 이렇게 그들은 비록 떨어져 있었지만 함께 있는 듯 삶과 일상을 공유했고 이 내용은 편지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매화꽃 피기를 기다려 이제야 이 시를 보냅니다.

…집에 도라오니 당신의 4월서신이 와있어서 배고픈줄도 모르고 큰 목소리로 읽어드렸지요. … 남북이 타의에 의해서 갈라졌다는 것 비극 중의 비극이라고 절실히 느낍니다. 당신의 민족통일의 염원이 이루어질 날이 반듯이 오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좀 더 일상생활 시시한것도 적어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부디 안녕 길(박용길, 1982. 4. 21).

한편 이 편지에는 옥바라지하는 가족의 삶과 상황이 무엇인지 잘 드러나 있다. 검열에 걸리지 않을 말들을 찾아 쓰고 중간에 혹 빠지는 편지가 있을까 염려하여 신 번호를 매겼다. 또한 편지 안에는 감옥에 있는 남편에 대한 걱정이 자주 표현되는데 감옥에 있는 식구를 걱정하고 그로 인해 편안한 일상을 차마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 또한 찾아볼 수 있다. 단식 중인 남편을 접견하고 돌아온 날에는 건강에 대한 염려 때문에 “뜻은 이해하면서도 괴로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박용길, 1981. 9. 3)고 쓰고 또 추운 날이면 사과가 얼 정도로 추운 감옥 안을 걱정하며 “따스한 온돌방에서도 춥다고들 하는데…(박용길 1982. 1. 13)”라며 감옥 밖에서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것을 미안해한다. 이러한 마음은

13) 양적으로만 보아도 그녀는 남편이 편지를 한 통 보낼 때 20여 통을 보낼 정도로 그와 일상을 공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추운 감옥 안에 있는 남편을 생각해 보이러를 틀지 않거나 좋아하는 스포츠 중계도 못 볼 남편을 생각해 T.V를 전혀 안보는 생활(박용길, 1981. 7. 7)을 하게 하였다. 또 너무나 바쁜 일상 탓에 남편이 쓴 편지에 잘 받았다는 회신을 못했던 일을 면회를 하고 나서야 알게 된 것을 두고 이틀 간의 편지에 걸쳐 쓰면서 “공주에 다녀와 당신께 죄를 지은 것 같은 느낌으로 괴로워하고 있다(1982. 1. 10)”고 적고 있다.

당신의 그 귀중한 12월 서신을 받고 읽고 또 읽고 읽어드리고 복사해서 식구들에게 보내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편지 써서 같이 보내는 큰 작업을 하다 보니 정작 당신께는 받았다는 회신도 못 보냈다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미안합니다. 보낸줄 알고 있었던 거죠(박용길, 1982. 1. 9).

이러한 박용길의 태도에 대해 문익환은 “그까짓 일 가지고 그렇게 자학하다니. 나가면 업고 다녀야겠다고 입버릇처럼 교도관들에게 말할 정도로 당신의 지성, 끝 간 데를 알 수 없는 극진한 사랑에 거의 압도당해 있다(문익환, 1982. 1. 17)”는 말로 위로를 하였지만 이 에피소드는 옥바라지 하는 가족의 마음과 상처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또한 옥바라지 편지인 ‘당신께’는 박용길이 남편을 대신하였던 여러 활동을 보여주준다. 민주화운동의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살았지만 사회로부터 격리된 감옥에서 그러한 행위는 제한된다. 감옥에서는 편지를 보내는 것조차 가족 범위로 한정하고 있었기에 문익환은 축하나 조의 표명, 격려사 전달 등도 아내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sup>14)</sup> 사월 혁명상을 받게 된 문익환을 대신해 상을 받으러 갔던 박용길은 상패와 메달을 손수 그려 문익환에게 보내면서 “하루 종일 당신 대역이랄까 같이 지내는 하루가 되었다”고 쓰고 있다(박용길, 1992. 4. 17).

14) 김세진과 강경대의 어머니, 이소선에게 보낸 편지들 수많은 민주화 인사들에게 이렇게 편지가 전달되었다.

옥바라지는 수감자가 여전히 행사할 수 있는 사적 혹은 미시적 권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 비공식적인 노동은 사적이며 주로 아내나 어머니 등 여성이 담당해야 하는 부분으로 인식되어 왔다(김병민, 2019, 18). 이러한 인식을 그대로 박용길의 편지에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당장 이러한 남성 위주의 인식이 ‘당신께’ 편지의 활용양상에서는 관찰된다. 그녀의 딸은 박용길의 편지가 외부로 잘 알려지지 못한 점을 안타까워하며 “남편인 문익환 목사의 옥중서신은 여러 권 출판되고 그럴 때면 박용길의 편지 중 예쁜 것 몇 장이 삽화처럼 실리곤 했다”며 이는 “마치 아름다운 그림 한 장, 또는 문익환은 이렇게 정성들인 아내의 편지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문영금, 2019, 15)”하다고 하였다.

박용길의 편지는 옥바라지의 역사를 다시 일깨울 수 있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김병민, 2019, 19). 옥바라지 편지에 나타난 박용길의 활동은 남편이 요청한 활동을 이행하는 수동적인 것을 뛰어넘어 동반자로서 한 사람의 주체적인 여성 활동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향후 새로운 조명이 필요하다. 1976년 문익환이 처음 감옥에 가게 된 사건인 3.1 민주국선언이 낭독된 다음 날인 3월 2일, 그녀는 선언문을 정서한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sup>15)</sup> 또한 풀려난 이후에는 3.1 구국선언 구속자 석방을 위한 가족 모임을 주도하고 양심수가족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공동의장으로서 구속자 가족운동의 핵심 멤버로 활약했다.<sup>16)</sup> 박용길의 편지는 그러한 주체적인 활동의 증거이며 그녀만의 필터로 작성된 민주화 운동사를 보여준다. 따

15) 문익환의 민주화운동 및 통일운동가로서의 행로에 그의 집안은 가족 결사체의 형태로 활동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문익환은 3.1 민주구국선언사건의 주범이었고 박용길은 낭독용 문건을 정서한 혐의로 붙들려가고 장남 문호근은 타이핑한 죄로 붙들려가서 남산에서 열흘 동안 조사를 받았다(김형수, 2018, 377).

16) 그녀는 이러한 활동의 경험을 여러 형태로 증언하고 기록했다. 박용길 (1998), “침묵을 깬 3.1 민주구국선언”. 『새롭게 떠오르는 3.1민주구국선언』. 서울: 사계절; 박용길·김석중·이종옥 (2000), ‘가족일기’, 『김대중 내란음모의 진실』. 서울: 문이당;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 구술사료 수집을 위한 구술면담-박용길” (2002),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라서 그녀를 단순한 조력자로 보거나 혹은 그 활동을 뒷바라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너무 협소하다. 박용길은 남편 사후에도 두 차례에 걸친 북한 방문을 비롯해 기독교 여성 활동, 민주화 및 통일운동가로서의 활동을 이어나갔으며 이런 측면에서 편지는 그녀의 행적을 재조명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3. ‘당신께’ 컬렉션의 특징

#### 1) 관리 맥락

감옥으로 보내졌던 이 편지는 문익환이 출소할 때 가지고 나와서 박용길 본인이 소장하고 있었다. 박용길 장로는 생전인 2009년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위탁보관 및 사용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때 편지의 정리 및 디지털화가 이루어졌다. 이후 편지의 원본은 사료관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다가 박용길 장로 별세 후 원본을 반환받아 현재 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풍부한 소장기록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했던 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는 2020년 소장기록 전반에 대한 개요 조사를 진행하였다. 상자 단위로 어떠한 기록들이 존재하는지를 개요로 파악하기 위해 진행했던 이 과정에서 기존 정리작업에는 포함되지 못했던 ‘당신께’ 편지가 다량으로 발견되었다. 이 편지들은 작은 나무 함 안에 있었는데 이 외에도 여러 문서 상자 속 곳곳에서 낱장으로 빠져있던 당신께 편지들이 작업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이렇게 새로 발견된 편지의 수는 약 224통으로 2021년 9월에 이에 대한 정리 및 디지털화 작업이 진행되었다.<sup>17)</sup> 한편, 기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정리에서 작성했던 편지 목록이 실물 기록관리와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

에 향후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2021년 9월-2022년 2월에 걸쳐 전체 ‘당신께’의 재정리 및 목록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때 장기 보존에 대비해 일반 파일에 보존했던 편지들을 중성 보존용품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sup>18)</sup>

현재 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가 소장하고 있는 것은 2,304통으로 그중 이미지로만 확인되고 실물이 없는 4통을 합하면 총 2,308통으로 파악된다(그림 3 참조). 이 수치는 주고받은 편지인 옥중편지가 총 807통인 것과 비교해보면 세 배 가까이 되는 분량이다.<sup>19)</sup> 양적으로 보면 박용길의 편지가 세 배 정도 많은데 이는 한 달에 한 번 면회와 한 장의 편지쓰기가 허용되었던 감옥과 달리 밖에서 들여보냈던 편지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웠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이미지가 제작되어 있으나 현재 실물을 확인할 수 없는 편지가 4통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 편지 실물이 영구적 분실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늦봄 아카이브의 기록은 일부만이 등록된 상황이라 정리되지 못한 상자 속에 섞여 편지가 존재할 수 있다. 나중에 추가된 224통의 ‘당신께’ 편지를 발견한 과정은 체계적인 아카이브 관리와 활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어딘가에 묻혀 있을지 모르는 편지의 발견 가능성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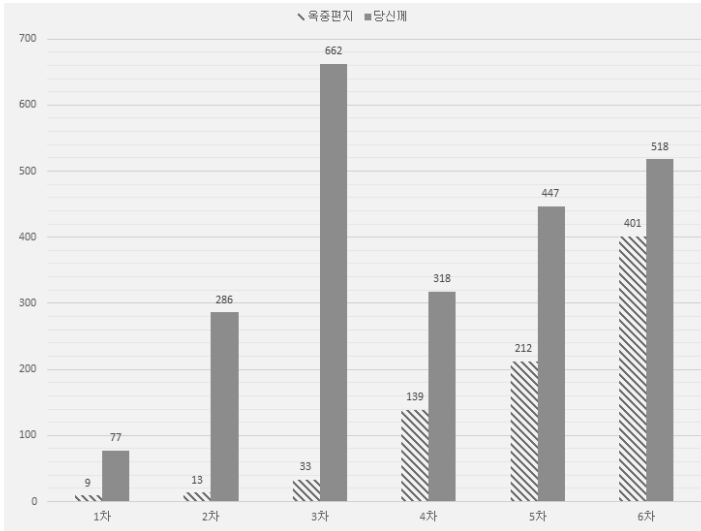
---

17) 약 224통의 추가된 박용길 편지의 정리작업은 기존 오픈아카이브 등록 사료의 보완 차원에서 2021년 5월-9월 진행된 『민주화운동 주요인사 사료조사등록사업』을 통해 등록 및 디지털화가 진행되었다.

18) 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는 이 작업을 아카이브 현장 학습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진행했는데 2021년도 2학기 동안 지속적으로 참여한 외부 인원만 15명에 달한다.

19) 옥중편지는 이 중에서 745통만 소장하고 있고 약 62통의 행방이 묘연하다. 실물이 확인되지 못한 편지들은 간행물로 소개된 바 있고 문익환 전집(제 7-9권)에서 그 내용이 확인 가능하다.

〈그림 3〉 감옥 시기별 당신께와 옥중편지 소장 현황



## 2) 작성 목적과 수신자

이 편지는 감옥에 있던 남편을 위해 매일 쓴 편지이다. 이 편지의 수신자인 문익환은 여섯 번의 감옥 생활에서 여덟 곳의 구치소와 교도소를 옮겨다니며 수감생활을 하였다.<sup>20)</sup> 박용길은 남편에게 면회를 다니는 한편 편지를 주고받으며 문익환에게 감옥 밖의 일상을 실어날랐다. 문익환도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 자신의 뜻을 전했다. 편지의 수발은 친족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법 제 18조 2항) 특히 아내인 박용길이 주 수신자였지만 문익환의 옥중편지는 부부 혹은 가족 간의 사적 내용을 담는 것을 넘어 모두에게 공개될 것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아내는 편지를 재생산하고 소식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20) 육군교도소, 서대문, 영등포, 진주, 안양, 공주, 청주, 진주, 안동 교도소를 옮겨 다니며 총 123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였다.

유통하는 역할을 담당했다(오명진, 2020). 상대적으로 아내의 편지는 일상적인 내용이 많으나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하였던 남편을 세상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했기에 세상 소식과 정보가 가득 포함되었다. 또한 남편의 일상과 감수성을 지켜주기 위해 편지쓰기는 규칙적일 수밖에 없었다. 1976년의 첫 수감 당시에는 조사와 재판으로 바빠 미처 편지를 쓸 여력이 없었지만 두 번째 수감 이후부터 박용길은 매일 편지를 쓰겠다고 다짐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했다.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셔야지 않겠습니까? 매일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날아갈 소식을 매일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받으시기 바라면서 이만 당신의 해인 무오년 만세(박용길, 1978. 12. 31)

편지쓰기가 박용길의 하루에서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은 편지의 곳곳에서 드러난다. 매일 편지를 쓴다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했고 고되고 또한 막중한 책임감이 필요했다. 박용길은 편지 준비를 위한 날을 정해 놓기도 하고, 편지를 쓰기 위한 도구를 가지고 다니며 장소를 가리지 않고 편지를 썼는데 은행에서 기다리는 시간도 편지를 쓸 정도였다. 이런 박용길을 두고 문익환의 어머니인 김신묵은 ‘편지쓰기의 달인’이라고 불렀다. 편지에 담긴 소소한 일상은 감옥에 갇힌 남편에게 전달되어 그의 일상을 지속하게 하는 힘이 되어 주었다.

오늘은 준비 하는 날.

당신께서 설교 준비를 하실 땐 밤을 꼬박 새우시던 생각이 나서 송구스럽습니다. 하루종일 집에서 편지쓰고(호근, 태근, 당신) 책 읽고 했더니 어머니가 들여다보시고 “편지전문가”가 되겠다고 하십니다(박용길, 1981. 8. 22).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책을 읽으셨는지? 책을 오늘 더러 보내

고 또 한뭉치 싸 놓고 편지 봉투 만들고 시를 쓰고 당신을 향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냅니다(박용길, 1981. 8. 21).

### 3) 공동 발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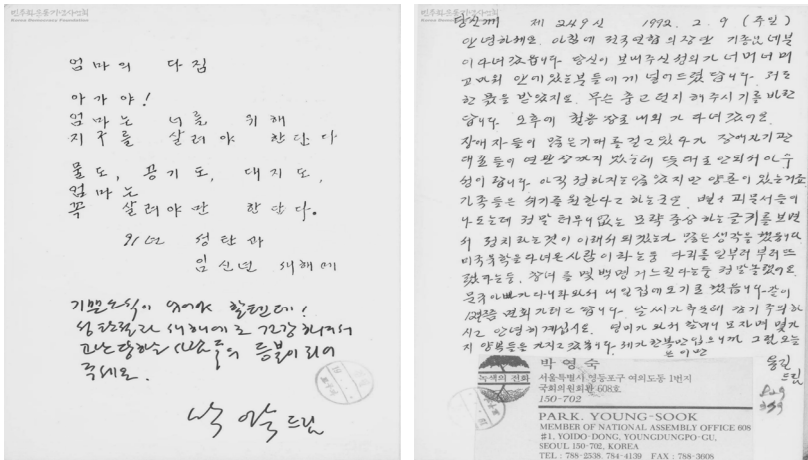
‘당신께’는 박용길이 쓴 것이지만 그녀는 때때로 발신자명에 가족 이름을 함께 쓰곤 했다. 예를 들어 박용길의 필체로 되어 있는 편지의 발신자가 문익환의 아들(문호근, 문의근, 문성근)과 손자(문바우)의 이름으로 된 경우가 종종 존재한다. 이때 적힌 그들의 이름은 옥바라지 가족공동체의 일원 자격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당신께’와 ‘옥중편지’ 모두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한데 첫 손자인 문바우가 태어난 해에 쓴 편지들의 경우 문익환은 편지의 수신자를, 박용길은 편지의 발신자를 종종 문바우로 하였다. 때로 박용길은 손자를 그리워하는 남편을 위해 스스로 손자가 되어 편지를 쓰기도 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님께 안겼다온지 벌써 한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제 백일되는 날입니다. 엄마가 시장보다가 흰무리와 경단을 만들어서 앞·뒤집에 나누어드렸습니다…… 할아버님 안녕히 계시다 오셔서 바우를 안아주세요 그럼 안녕히 주무십시오. 맏손자 바우 드림 (박용길, 1979. 1. 25)

하지만 편지에 실질적인 제 2의 발신자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주로 하나의 편지를 식구들과 같이 쓰거나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편지지로 삼아 쓴 편지가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공동 발신자로 보아도 무방한데 가족과 형제자매관계에 있는 친지들의 편지가 자주 이런 편지쓰기 방식에 동원되었고 외부 다양한 인사나 단체들도 있다. 편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약 50여명의 제 2발신자를 확인하였다. 여기

에는 박영숙, 이우정, 문정현, 문규현, 조아라, 이부영, 한빛교회 청년부 등 외부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그림 4 참조).<sup>21)</sup> 하지만 세부 발신자는 글씨체와 내용을 비롯, 박용길의 주변과 이러한 맥락을 알고 있는 작업자의 검수 과정이 이루어져야 보다 정확한 규모의 파악이 가능하기에 밝혀진 숫자가 전부라고 보기 어렵다. 이 같은 방식의 편지쓰기가 이루어진 것은 무엇보다 박용길이 지인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문익환과 공유하려는 목적으로 추측된다. 타인으로부터 받은 편지의 뒷(옆)면이나 한쪽 귀퉁이의 남는 공간에 자유로운 형태로 자신의 사연을 덧붙여 쓰는 방식으로 쓴 ‘당신께’ 편지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림 3〉 박영숙이 보낸 편지에 박용길이 쓴 ‘당신께’ 1992. 2. 9.



출처: 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

21) 오픈 아카이브에 등록되어 서비스되고 있는 ‘당신께’ 편지에서 나타난 메타데이터 정보 중 대표적인 오류가 이러한 발신 정보에 대한 잘못된 파악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박용길의 언니가 보낸 편지에 박용길이 내용을 덧붙여 쓴 편지의 경우, 언니가 박용길에게 쓴 내용을 두고 박용길이 문익환에게 쓴 것으로 오인해 내용 정보를 기술한 경우가 있다. 예) 박용길 장로가 문익환 목사에게 보낸 편지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828529> (사료번호 8285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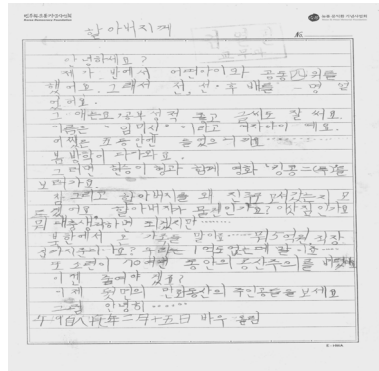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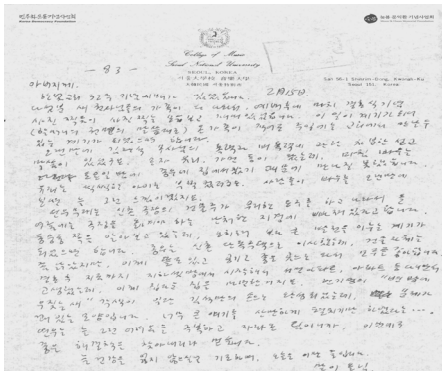
매일 편지를 쓰겠다는 결심은 대단하나 힘든 일이었는데 든든한 지원군은 큰아들(문호근)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책임을 덜어주기 위해 주말에 아들(문익환의 손자)과 함께 편지를 쓰고자 했다. 또 박용길이 해외에 나갔을 때 편지를 쓰기 어려운 어머니를 대신해서 일정 기간 편지 쓰기를 맡았다. 이 편지들은 박용길이 직접 쓴 것이 아니나 그 목적이 편지의 의도 즉, 감옥에 있는 남편을 위한 옥바라지의 목적으로 매일 쓰고자 했던 취지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컬렉션의 일부로 취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유형에 해당되는 편지는 약 49통으로 때때로 주말에 쓴 편지를 제외하고는 박용길이 외유를 나갔던 1992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작성된 것이 대부분이다.

아버지.

바우와 제가 매주 주일날 아버지께 편지 쓰기로 하였습니다.

어머니 너무 애쓰시는데, 이렇게라도 적으나마 짐을 덜어드리자는 뜻과, 그리고 저도 바우도, 그동안 너무 소식드리지 못한 것 죄송스러웠던 뜻도 있습니다(문호근, 1987. 2. 8).

〈그림 5〉 문호근과 문바우가 쓴 ‘당신께’ 1987. 2. 15.



출처: 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

#### 4) 세부 시리즈 구성 체계

박용길의 편지는 개별적이기보다는 집합적 성격을 가지며 고유의 ‘신’ 번호 체계를 갖고 있다. 이 편지들은 문익환의 감옥 시기별로 여섯 개의 하위 시리즈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시리즈의 현황은 다음의 <표 1>와 같다. 편지는 1976년부터 1993년까지 전 수감 기간에 걸쳐 고르게 남겨져 있는데 1977년 4월 9일에 작성된 첫 편지를 시작으로 1993년 2월 27일자 편지가 마지막인 것으로 확인된다. 수감 후 첫 편지가 작성된 시점은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데 처음이고 또 재판 등으로 편지를 쓸 경향이 없었던 첫 투옥을 제외하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투옥되었던 세 번째 감옥 때 가장 늦게 첫 편지가 작성되었다. 당시 문익환은 육군 남한산성 교도소를 거쳐 서대문, 공주, 안양에서 수감 했고 이때 박용길이 감옥으로 보낸 편지 중 남아있는 첫 편지는 공주에서 작성된 1981년 2월 5일자이다.<sup>22)</sup> 그에 반해 여섯 번째 감옥의 경우 체포된 당일에 첫 편지가 작성되었다(박용길, 1991. 6.6). 문익환은 강경대 사건 때 그의 장례 위원장을 맡은 것 등이 문제가 되어 형집행정지가 취소되고 일흔넷의 나이로 감옥에 갔다. 이 편지에서는 탁구를 치고 있던 휴일의 일상 속에 남편이 체포되던 상황과 어느덧 담담한 듯 느껴지는 심경이 엿보인다.

제 1신 휴일도 없나보죠?

당신께. 두 식구가 본의 아니게 남누리북누리로 갈라지고 말았군요. 그런 줄도 모르고 외손자와 탁구를 신나게 치고 있었다니... 부디 쌓였던 피곤을 푸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용길 (박용길, 1991. 6.6)

22) 당시 문익환은 1980년 5월 17일 밤에 체포되어 외부와의 연락이 일체 단절된 가운데 안기부에서 55일간 혹독한 조사를 받았고 이후 육군교도소로 송치된 후에야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으며 비공개로 군사재판을 받았다. 이문영, 한승헌, 이해동 외(2000).

하지만 보낸 통수로만 보면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투옥된 세 번째 감옥 시기에 쓴 편지가 가장 많고 3.1 민주구국선언사건으로 처음 투옥됐을 때의 편지가 한 달에 3.5통 남짓으로 가장 적다. 두 번째 구속 이후로는 매일 쓰기를 공언한 후 한달에 평균적으로 20통에서 많게는 24.7통 정도를 보냈으며 123개월간 평균적으로 약 19통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문익환의 편지가 당국의 규제로 한 달에 한 통 수준으로 보낼 수 있었던 것에 비하면 압도적인 규모라고 할 수 있다. 문익환의 경우 비교적 자유롭게 편지를 쓸 수 있게 된 것이 네 번째 감옥 이후라 특히, 두 번째에서 세 번째 감옥 시기에 주고받은 편지 숫자의 차이가 도드라진다(그림3 참조).

〈표 1〉 감옥 시기별 편지 작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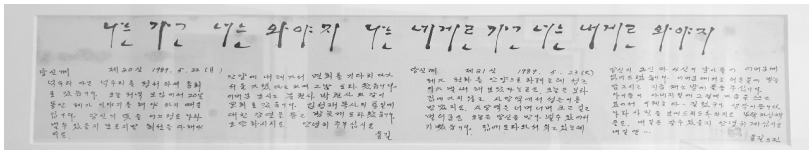
구분	시작일	종료일	첫편지	마지막편지	통수
첫 번째 감옥 3.1 민주구국 성명서 작성으로 구속	1976 .3.2	1977.12.31	1977.4.9	1977.12.28	77
두 번째 감옥 유신헌법 비민주성 폭로를 이유로 형집행정지 취소되어 재수감	1978.10.13	1979.12.14	1978.12.6	1979.12.4	286
세 번째 감옥 내란음모죄로 구속	1980.5.17	1982.12.24	1981.2.5	1982.12.22	662
네 번째 감옥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선동죄로 지명수배된 후 자진출두 해 구속	1986. 5	1987.7.8	1986.7.1	1987.7.5	318
다섯 번째 감옥 방북 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1989. 4.13	1990.10.20	1989.5.3	1990.10.12	447
여섯 번째 감옥 분신정국 장례위원장 활동으로 형 집행정지 취소되어 재수감	1991. 6.6	1993.3.6	1991.6.6	1993.2.27	518

한편, 각 편지 시리즈는 “신”이라는 번호체계를 갖고 있다. 이런 번호는 세 번째 감옥 편지부터 찾아볼 수 있는데 새로운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새롭게 1신으로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박용길의 편지에 “○신”으로 번호를 붙인 것은 검열로 인해 편지가 누락될까 봐(문영금, 2019)였는데 문익환도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였다. 세 번째 감옥은 1981년 2월 5일 1신을 시작으로 686신(1982.12.22)까지 부여되어 있고 네 번째 감옥은 1신(1986.7.1)부터 222신까지 작성되었다. 한편, 다섯 번째 감옥은 429신까지 이어지다가 새롭게 1신부터 시작한 특이한 경우이다. 당시 문익환은 어머니의 죽음으로 장례를 위해 잠시 며칠간 석방 조치되었다가 복귀하였는데 새롭게 시작된 신은 문익환의 어머니가 별세한 1990년 9월 20일을 기점으로 22신까지 쓰였고 가석방되면서 끝이 났다. 출감되었다가 취소되어 재수감된 경우가 여러 번 있었던 탓에 재구속이라 판단하여 새로운 신 번호를 붙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그림 6>은 문익환의 시 ‘나는 가고 너는 와야지’<sup>23)</sup>의 구절인 “나는 가고 너는 와야지 나는 네게로 가고 너는 내게로 와야지”를 쓴 문익환의 글씨에 박용길이 편지를 쓴 것이다. 보통은 한 날짜에 1신씩 작성했지만 이 편지처럼 한 편지에 두 개의 신이 담긴 경우도 있다. 이 편지에는 1989년 5월 22일자 20신과 5월 23일자 21신이 함께 담겨 있으며 이런 경우들로 인해 전체 편지 통수보다 신의 수가 많다.<sup>24)</sup>

<그림 6> 문익환의 글씨 옆에 쓴 ‘당신께’ 1989년 5월 22일-23일



출처: 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

23) 이 시는 문익환의 세 번째 시집 『난 뒤로 물러설 자리가 없어요』(1984)에 수록된 것으로 그가 쓴 후기에 따르면 그가 한창 민주화운동가로 활동하던 시기인 1983년에서 1987년 사이에 썼다.

24) 정리 작업에서 파악된 한 개의 편지에 두 신이 작성된 경우는 92통이다.

## 5) 작성 방식과 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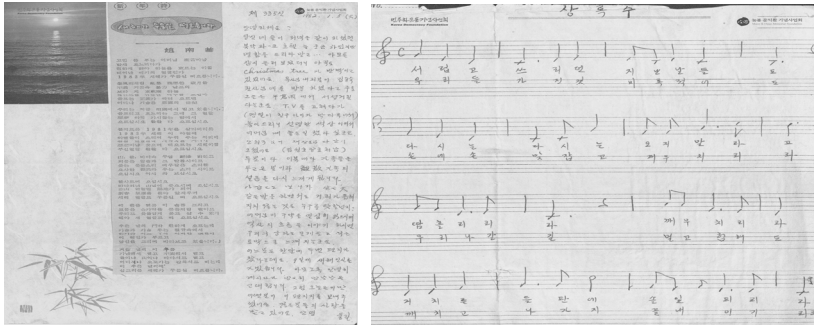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개인기록에 부과된 특별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작성 방식이나 사용하는 재료는 매우 다양할 수 있다. 박용길의 편지는 감옥 안에 갇힌 남편이 세상을 느끼고 감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작성하였고 이에 편지는 다양한 내적 형식과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여기엔 발신자인 박용길만의 독특한 특징이 유감없이 발휘되어 있다. 먼저, 편지의 구성은 여러 형태를 띠는데 주로 시와 악보, 사진과 기사 등 감성을 깨우는 내용과 세상 소식이 편지에 포함됐다. 예를 들어 1981년 5월 21일부터는 편지에 매일 시 한편씩을 적어 보냈고 악보와 사진이 추가되기도 했다(그림 7 참조). 박용길은 가방에 편지를 갖고 다니며 잠이 날 때마다 편지를 썼지만 이렇게 기록된 편지를 쓰기란 쉽지 않았다. 악보를 손으로 그리고, 시를 적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나중에는 스크랩을 해서 보내는 방식을 사용했다.

새해부터는 당신께 양해를 구할 일이 있어요. 제가 공부를 좀 해야겠기 때문에. “시”나 “악보”를 직접 써서 보내던 것을 활자대로 보내드리려고 해요. 제가 성의를 다 하지 못하는 것 같애 섭섭하지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이고 옆에서 충고들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렵니다(박용길 1982. 1. 1).

그녀의 편지들이 풍부한 소식과 정보들로 알차게 구성되면서 이를 담기 위한 편지와 봉투의 소재가 다양해졌다. 달력 종이를 활용하거나 화선지에 쓴 것 등 규격도 일정하지 않았다. 큰 규격의 편지를 담기 위해서 서류 봉투 크기 정도로 편지 봉투를 만들었으며 그 안에도 담기지 않는 것은 접어서 넣기도 했다.<sup>25)</sup> 아카이브가 소장하고 있는 편지 중

25) 아쉽게도 편지와 봉투가 함께 남겨져 있지 못하고 분리된 채로 상당한 분량이 남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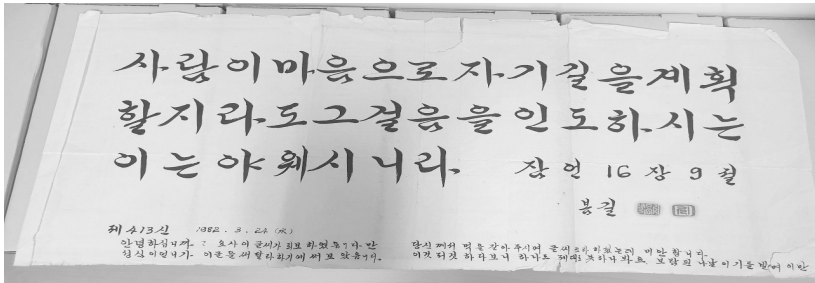
〈그림 7〉 신문스크랩과 손수 정서한 악보로 구성된 '당신께' 1982. 1. 5



출처: 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

약 36통의 편지가 A3 크기 이상의 대형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반대로 아주 작은 크기의 메모지도 사용했다. 또, 박용길은 평소 글씨쓰기에 많은 공을 들여 힘 있는 글씨를 쓰고자 했고 필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으며 서예 작품도 많이 남겼다. 이러한 그녀의 솜씨는 편지쓰기에도 반영되어 화선지에 붓글씨로 의미 있는 구절을 쓰고 여기에 편지를 써 보내기도 했고 문익환이 쓴 붓글씨 여백에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하였다.

〈그림 8〉 화선지에 쓴 '당신께' 1982. 3. 24.



출처: 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

특히 박용길은 다양한 편지지 재료, 작성 용구, 장식을 위한 부자재 등을 사용하고 있다. 편지지도 일반 편지지와 봉합엽서, 일반 우편 엽서에 쓰여진 평범한 것들도 있지만 주위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달력, 포장지, 도화지, 책피 등 다양한 소재를 재활용해 쓴 것들도 상당수이다.

〈그림 9〉 말린 꽃과 사진 등으로 예쁘게 꾸며 작성한 ‘당신께’



출처: 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

편지들은 말린 나뭇잎이나 꽃잎, 네잎 클로버, 깃털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서 예쁘게 꾸몄다. 이렇게 장식된 편지는 삭막한 감옥 안에 활기를 가져다주었고 문익환의 예술적 감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양분이 되어 주었다. 특히, 박용길이 색다른 자료들로 편지를 풍성하게 장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주위 사람들은 목사님께 보내는 편지의 재료로 사용하도록 때때로 예쁜 천, 레이스, 냅킨 등 다양한 재료들을 보내주기도 하였다.

...라이락 향기가 하도 좋기에 한송이 보냅니다. 종옥님이 보내라고 따 주었어요. 옆에서까지 편지에 협조해 주는군요. 그럼 봄날, 따뜻한 봄날 안녕하세요. 용길(박용길 1982. 4. 22)

#### 4. ‘당신께’ 컬렉션의 가치와 과제

##### 1) 소장자료로서의 가치

‘당신께’ 컬렉션은 그녀가 남긴 기록 중에서 인생의 전환점에서 새로

은 생을 개척하면서 형성한 대표적인 삶의 기록일 것이다. 특히 아내가 감옥에 있는 남편을 위해 보냈던 옥바라지 편지로서 남편의 일상과 감수성을 지켜내기 위한 사랑의 편지에서 시작되어 구속자 가족운동, 민주화운동, 통일 운동의 현장을 지켰던 여성의 삶을 보여준다. 또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 옥바라지의 역사와 구속자 가족 활동의 중심에 있었던 사회운동가로서 박용길의 히스토리(her story)를 담고 있어 앞으로 다양한 가치로 재조명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당신께’는 남편과 주고받은 편지로서 문익환의 옥중편지 컬렉션이라는 연관 기록을 갖고 있어 한층 더 특별하다. 두 편지 간의 상호적인 맥락이 분석된다면 이는 이 편지만이 갖는 특색이 될 수 있다. 특히, 편지에는 민통련 의장을 두 차례 역임한 재야인사였던 문익환과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 유학을 다녀온 재원이었던 박용길 부부가 일생을 거쳐 폭넓게 형성해 놓았던 교계와 신학, 인권·민주화·통일과 관련된 인적 교류 네트워크가 담겨 있다. 이용자들은 편지에서 개인과 가족의 이야기뿐 아니라, 이들 부부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인물 관계와 상황들을 읽으며 한국 근현대사의 생생한 단면들을 관찰하고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편지의 특성은 다양한 학술적 접근을 위한 기초 자료이자 열람 활용의 욕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국내 정서상 감옥으로 보낸 가족의 편지는 사적인 것으로 치부되어 좀처럼 공개되는 일이 없었고, 시간이 지나 사라지거나 개인적으로 처분해 버리기 일쑤였다(김병민, 2019). 하지만 박용길의 개인 편지는 거의 전모가 다량으로 남아있고 온라인 서비스를 위한 최소한의 목록과 원문 이미지가 준비되어 있어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 박용길 편지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시점은 사단법인 통일의 집이 주관한 <2019년 박용길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때였다. 이때 기록가로서의 면모를 지닌 주체적인 여성으로서 박용길을 그

리는 특별전시“사랑의 기록가전”이 열리고 “봄길 박용길”평전이 간행되었으며 편지 100편을 선별해 기념 편지집 “사랑의 기록가 박용길”을 펴내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sup>26)</sup> 박용길의 편지는 한국의 민주화운동 역사에서 여성의 옥바라지를 재평가해볼 수 있는 자료로서 더욱 다양한 활용 가치가 발굴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21년도 2학기, 늦봄문익환아카이브는 대학원생 및 일반 이용자들을 위한 현장 및 온라인 실습의 장으로 활용되었다. 이 활동은 절대적인 노동력이 부족한 민간 아카이브의 필요와 현장감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 교실의 요구가 잘 융합되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아카이브 입장에서 작업대상을 선정할 때 가장 우선했던 점은 학생 작업자들에 적당한 작업대상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박용길의 편지가 그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손글씨로 쓰였지만 비교적 읽기 쉽고 일상적 내용을 다루고 있어 친근하며 동시대의 사건과 인물이 소재로 등장하여 학생들로부터 큰 흥미를 이끌어 낼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현장에서 당신께 편지 실물을 직접 만져보고 정리했으며 온라인으로는 편지 이미지를 활용해 내용을 읽고 전사하는 작업을 진행했다.<sup>27)</sup> 결과적으로 한 학기 수업을 통해 천 통이 넘는 박용길 편지에 대한 전사 작업이 이루어졌다.<sup>28)</sup> 가독성과 흥미, 접근성을 갖춘 매뉴스크립트로서 ‘당신께’ 편지가 갖는 특징들은 다양한 아카이브 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는 충분한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6) 이주현·김경애 (2019. 10. 22), “늦봄 문익환 지켜낸 아내 ‘봄길의 편지’ 첫 공개한다.”, 한겨레; “이진욱 (2019. 10. 25), 이 청혼 편지로 ‘늦봄’과 ‘봄길’은 서로 버팀목이 됐다”, CBS 노컷뉴스; EBS 지식채널e (2019. 11. 25), “당신께 내일 또 쓰지요”

27) 기록물 전사(transcription)는 필기체로 쓰여진 기록의 가독성을 높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위한 기초 자료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아카이브의 활동이다.

28) 교육이 끝난 후 제출된 참가 학생들의 후기에 따르면 현장 수업이 대단히 유용하다고 평가되었고 특히 박용길 편지가 흥미롭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 2) 향후 과제

2021년도에 이루어진 두 차례에 걸친 ‘당신께’의 정리 작업은 어찌 보면 2019년도의 활발했던 활용에 힘입은 바가 크다. 빈번한 활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편지 실물의 체계적인 관리의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편지 정리작업을 더는 지체할 수 없었다. 이에 누락된 편지를 추가 등록하고 실물 위치를 통제하기 시작했으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화와 전사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편지가 아카이브 소장기록으로서 고유번호를 얻고, 비교적 보존성이 높은 재료를 사용해 서가에 배치된 것으로 정리 작업이 완결되었다고 보긴 어렵다.<sup>29)</sup> 특히, 다량의 편지를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으려면 고도화된 기술(description) 체계를 준비해야 한다.

현재로선 늦봄문익환아카이브 플랫폼이 제공하는 기능을 바탕으로 세부 시리즈 구성을 살려 전체 편지를 서비스하는 것이 단기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 이 작업은 이미 확보된 기본 메타데이터와 디지털화된 산출물을 토대로 가능하다. 다만 이미 진행 중인 전사 작업을 감안했을 때 텍스트화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함께 탑재한다면 한층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박용길의 글씨는 읽기 쉽고 가독성이 높으며 문익환의 편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짧고 간결하다. 하지만 보관 과정에서 일부 훼손과 오염된 것들이 존재하고 역시 손으로 쓴 글씨라 알아보기 어렵게 흘러 쓴 부분이 섞여 있다. 또한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일본어, 한자, 영어를 사용하던 습성이 편지 곳곳에 남아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학생들의 전사 작업에서 어려움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교정과 검수를 통해 텍스트 작업의 결과 품질을 높이고 아울러 반

---

29) 이미 대부분의 박용길 편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 아카이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서비스되고 있지만 내용과 맥락에 관한 검토가 미흡한 상황에서 개별 건 수준으로 다루어지고 있어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각주 22 참조).

정도 남아있는 전자 대상에 대한 작업을 마무리하여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당신께'의 특성을 고려한 보다 향상된 검색도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공동 발신자, 신변호, 관련 인물, 사건, 공간, 매체적 특징 등 접근점으로 활용할만한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메타데이터 요소로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미흡한 편지 맥락을 확인해 설명정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약에 의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 아카이브를 통해 이미 공개되었으나 동시대 기록으로 개인사와 관련된 최소한의 프라이버시 등 보호해야 할 요소들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주고받은 편지인 문익환 옥중편지와 연계한 통합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sup>30)</sup> '당신께'와 문익환 옥중편지는 상호 관련 있는 편지들로 내용상의 연관성이 깊으며 동일한 시리즈 구성과 신 변 호 체계를 갖는다는 공통점이 있을 뿐 아니라 사건과 인물 관계망도 공유하고 있다. 특히, 옥중편지의 경우 텍스트 작업을 완료해 2020년 12월부터 늦봄 문익환 아카이브에서 전문(full-text)과 사료 이미지를 서비스하고 있을 뿐 아니라 편지 내용을 분석해 편지를 위한 별도의 검색도구를 제작하고 주제별 접근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두 편지 간 공유되는 특징과 관계성을 분석하고 검색도구 차원에서 통합성과 연계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고받은 편지간의 맥락을 파악하는 작업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편지와 같은 매뉴스크립트들은 일반적으로 발신자와 수신자가 정황을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씌어진다. 이렇게 컨텍스트를 공유한 특정 독자를 위해 씌어진 텍스트에서는 컨텍스트에 대한 친절한 설명

---

30) 늦봄 아카이브의 옥중편지 전용 검색도구 메뉴는 수감 시기별(연도별), 수신자별(가족, 친구, 지인 등), 주제별로 옥중편지를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https://archivecenter.net/tongilhouse/archive/Webpage.do?page\\_id=150](https://archivecenter.net/tongilhouse/archive/Webpage.do?page_id=150)

을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제한된 지면으로 인해 압축적이며 생략이 빈번하다는 점 또한 서간문의 맥락 파악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소이다(장유승, 2009). 따라서 주고받은 편지 간의 맥락을 밝혀 편지 텍스트를 해석하기 위한 연구 작업이 필수적이다. 두 편지의 내용을 상호적으로 분석하고 관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지만 편지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스토리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의미있는 관계를 구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유용성을 모색해 볼 필요도 있다.

디지털 인문학이란 단순히 디지털화된 형태로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화되어 제공된 자료가 다양한 연구에 창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용길의 편지가 효과적으로 서비스되려면 내용과 컨텍스트에 기반한 다양한 접근점으로 구조화한 편지 디지털 컬렉션으로 재탄생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편지 활용양상을 보면 기억에 의존해 아는 편지 위주로 중복적으로 활용되는 부분들이 관찰되고 있다. 지속적인 기억(perpetual memory)인 기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록 특성에 맞게 쉽고 편하게 원문 사료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해석과 창작의 플랫폼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 5. 맺음말

아키비스트는 소장기록을 정리하고 활용시키는 과정에서 맥락을 중요하게 다룬다. 이는 소장기록과 그 배경 맥락에 관한 명확한 이해와 인식이야말로 그 기록을 어떻게 관리하고 서비스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원칙을 세워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맥락은 아카이브 내외부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아카이브가 수행하는 전문적인 행위의 타당성을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 이 연구는 아카

이브 소장기록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가치를 보여주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편지 컬렉션 전체를 대상으로 총체적인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로서 봄길 박용길의 ‘당신께’ 편지가 한국 현대사의 한 단면을 박용길이란 인물의 눈으로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사료임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또한 이후 필요한 후속 연구와 실무과제를 통해 편지 컬렉션이 아카이브 소장기록으로 널리 활용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가 인물 아카이브 소장기록으로서 개인 편지를 발굴하고 학계에 소개하는 연구로 장차 이 사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김대중 (2010). 김대중 자서전 1. 서울: 도서출판 삼인.
- 김병민 (2019). 매일 감옥으로 보낸 편지. 『사랑의 기록가』. 서울: 문익환 통일의 집. (비매품)
- 김형수 (2018). 문익환 평전. 파주: 다산책방.
- 마이클버드·올랜드 버드, 황종민 옮김 (2021). 작가의 편지 : 제인 오스틴부터 수전 손택까지. 고양 : 미술문화.
- 문영금 (2019). 사랑의 기록, 처음 보낸 편지와 마지막 보낸 편지. 『사랑의 기록가』. 서울: 문익환 통일의 집. (비매품)
- 심옥주 (2021). 안중근 家 여성의 독립운동에 관한 연구. 민족문화연구, (90), 389-420.
- 오명진 (2020). 문익환 옥중서신의 특성과 활용, 기록학연구, (66), 317-355.
- 이봉수 (1925. 7. 21.). 鐵窓回顧 (5): 수인의 위안. 동아일보.
- 이종민, 식민지하 근대감옥을 통한 통제 매카니즘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1998.
- 장유승 (2009). ‘정조어찰첩’의 사료적 성격 : 승정원일기와의 대조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66), 117-143.
- 전영옥 (2016). 식민지기 서대문형무소 주변의 옥바라지. 도시연구, (16), 105-134.
- 정경아 엮음 (2020). 봄길 박용길. 서울: 도서출판 삼인.
- 정용욱 (2020). 편지로 읽는 해방과 점령. 서울: 민음사.

한명숙 (2020). 시대적 소명을 살아낸 한 여성을 기억하며. 『봄길 박용길』. 서울: 도서출판 삼인.

후지이 다케시 (2016. 2. 28), 옥바라지 기억하기. 한겨레

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 소장목록-당신께, 2021. 3. 7.

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 분류기준표. 2022.

늦봄문익환아카이브 <https://archivecenter.net/tongilhouse>